

한국 근대 소설 속 결핵의 표상과 식민지의 여성 환자

김주리*

차례

1. 머리말
2. 근대의 감염과 처벌되는 여성
3. 세련된 취향과 구원의 여상(女像)
4. 식민지 근대의 현실과 저항하는 여성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일제 강점기 소설 속 여성 결핵 환자의 표상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분석하려 한다. <호토토기스>가 조일재에 의해 <불여귀>로 번역되고 선우일과 김우진에 의해 <두견성>과 <유화우>로 번안된 이래 우리나라 소설에서 결핵에 걸린 여성은 동정과 매혹, 공포와 연민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형상화되어왔다. <유화우>나 <환희>에서 여성의 결핵은 근대 자본주의 문명에의 감염으로 인해 식민지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감성을 가진 데 따른 처벌이나 교정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반해 이태준의 <구원의 여상>은 타락한 여성의 죄책감이 아니라 순결한 여성의 희생정신과 결핵을 관련짓는다. 세련된 취향을 구사하는 미모의 여성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희생양으로서 낭만적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송계월과 강경애 등 여성작가들의 소설에서 여성 결핵 환자는 단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순히 자본주의 현실에 희생되는 존재가 아니라 저항하는 존재로서의 승고함을 나타낸다.

핵심어 : 결핵의 표상, 여성 환자, 처벌, 응시, 저항, 식민지 가부장제 자본주의

1. 머리말

일제 강점기에 신여성은 근대문명의 수혜에 따른 육체적 특수성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그들의 건강문제는 도시, 연애, 근대가정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 근대도시의 온갖 병균과 오염에 노출되어 있으면서도 “녀자학생은남자학생과달라서 건강진단을하는데도여러가지의곤란한점이있고 따라서특별한병이있기전에는 자세한진단을하기가어렵”¹⁾다. 그들은 학교에서 체조교육 등을 받음으로써 구여성과 달리 혈색이 좋고 등이 곧으며 다리의 근육도 발달되고 가슴도 발육되어 있는 등 건강한 편이지만 “그 대신으로녀학생계에는구가덩부인이 별로업는소위문명의병(文明病)이만히잇”다. “그중에도데일만흔 것은 신경병(神經病)과근시안(近視眼)이”⁽³⁷⁾다. 신여성은 구여성과 달리 교육과 사회활동에서 오는 건강을 가진 동시에, 신경증과 근시안 같은 문명의 병을 앓는 존재로 나타난다. 그들의 특정한 육체적 자질은 남성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신여성과 근대 사회의 관계에서 새로이 부각되는 치명적인 질병이 결핵이다.²⁾ 결핵균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 전염병 결핵은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 사회 환경, 도시 환경의 변화 가운데 급속도로 확산되며

1) 박계양, 『내가본여학생의건강상태』, 『신여성』, 1926.3, 36쪽.

2) 결핵이라는 병명은 19세기 말 결핵균이 발견되고 해부조직학이 발달해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사용되었으며, 한의학에서는 폐로(肺癆), 노채(癆瘵) 등으로 불렀다. 결핵에 대한 근대 지식이 전래된 것은 일제 강점기이지만, 대부분의 결핵환자들은 한의학과 민간요법에 의존해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대한결핵협회 편, 『한국결핵사』, 1998, 119, 133, 190-191쪽 참고)

요절의 절망감을 환기함으로써 낭만주의 시대의 어두운 분위기를 자아낸다.³⁾ 수잔 손탁에 의하면 19세기 서구 사회에서 결핵은 근대적 연애와 연결되며 결핵환자는 열정으로 소모되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폐결핵으로 죽어가는 젊은 여성의 모습은 소모되어가는 육체와 고양된 정신을 환기하며 문학적 주제로 등장한다.⁴⁾ 그러나 식민지의 현실에서 여성의 결핵은 이와 같이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환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결핵은 식민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황폐함과 억압, 그 속에서 여성이란 타자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수난과 희생, 좌절과 저항의 의미를 담는다. 본고는 일제 강점기 소설에서 여성 결핵 환자의 표상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해명하고자 한다. 질병의 표상이 여성의 타자성과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 부딪치며 어떻게 서사화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소설 속에서 낭만적인 환상인 동시에 열악한 현실의 모순된 대상으로서 여성 결핵 환자의 의미를 돌아볼 것이다.

2. 근대의 감염과 처벌되는 여성

우리나라 소설에서 (여성) 결핵 환자가 등장하는 첫 텍스트는 1912년 도쿠토미 로카의 <호토토기스(不如歸)>를 번역 또는 번안한 조중환의 <불여귀>, 선우일의 <두견성>, 김우진의 <유화우>가 될 것이다. <호토토기스>는 청일전쟁 전후 일본을 배경으로, 폐결핵을 앓는 귀족 여성 나미코와 다정다감한 성정을 지닌 해군장교 다케오의 연연한 부부애와 전쟁, 질병으로 인한 이별의 비극을 서사화한다. 전쟁에 나간 남편을 그리워하며 죽어가는 나미코의 세련된 아름다움과 병약한 이미지, 그 운명에 대한 슬픔은 여성과 결핵을 관련짓는 낭만적 환상 가운데 자리한다.⁵⁾

3) 르네 듀보, 『건강이라는 환상』, 허정 역, 삼성미술문화재단, 1982, 195-196쪽 참고.

4)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12-58쪽 참고.

5) 가라타니 고진은 <불여귀>는 결핵으로 죽어가는 귀족여성 나미코를 여주인공으

조중환의 번역 <불여귀>에서 나미코의 질병은 “선천 폐병을 가졌을 터”⁶⁾인 자식의 생산 때문에 문제적이다. 다케오의 이중사촌으로 나미코에게 적개심을 품은 지지와는 여성의 결핵이 가진 공포를 전염이 아니라 폐병 형질의 유전이라는 논리로 극대화하며, 다케오의 모친 역시 질병이 남편이나 자식에게 옮을 것을 두려워한다. 선천적으로 폐병 형질을 타고 난다거나 가족에게 병균을 옮겨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논리가 사실이라면 나미코는 근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존재일 것이다. 폐병균의 전염(또는 유전)이라는 근대 의학의 단일원인론에 따라 나미코에 대한 격리와 이연은 합리화된다.⁷⁾ 다케오의 모친은 악인이라서가 아니라 근대 의학 지식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다케오와 나미코의 이연을 단행하는 것이다. 서사에서 나미코의 질병은 누구에게도 전염되지도 유전되지도 않지만, 이 사실은 아무도 중시하지 않는다. 결핵이 결핵균의 침투를 통해 생겨나며 전염된다는 의학의 권위가 확고한 상황에서, 섭생과 환경의 영향을 받는 만성 질환으로서의 실제 결핵은 감추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설에서 결핵은 터무니없는 공포나, 낭만적인 동경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적 이미지로 나타난다.⁸⁾

로 등장시키며 나미코가 결핵에 의해 아름답게 쇠약해져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에서 은유로서의 결핵을 형상화하였다고 지적한다. 가라타니 고진, 『일본 근대소설의 기원』, 박유하역, 민음사, 2005, 134-138쪽 참고.

- 6) 조중환, 『불여귀』, 박진영 편, 보고사, 2000, 133쪽. (이 글에서 <불여귀>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이후에는 인용쪽수만 표시함.)
- 7) 세균이라는 단일 요인이 특정 질병을 일으킨다는 서구 근대 의학의 신화적 사고방식은 1882년 로버트 코흐가 결핵균을 발견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대리언 리더, 데이비드 코펠드, 『우리는 왜 아플까-몸과 마음의 관계로 읽는 질병의 심리학』, 배성민 역, 동녘사이언스, 2011, 39-41쪽 참고.) 세균과 같은 외부 침입자가 인체 조직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함으로써 질병은 개인의 몸을 둘러싼 전체적인 환경이나 섭생의 차원을 벗어나 단일 병원균의 침입과 격퇴라는 기계적인 작용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 8) <호토토기스>가 처음 발표된 1900년대와 달리 1910년대 <각본 호토토기스> (1909)에 이르면 일본에서 폐병의 만연이라는 사태에 부딪히게 되면서 나미코의 병에 낭만적인 미학을 부여하는 이미지는 약화되고 공포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 권정희, 『호토토기스의 변용』, 소명출판, 2012, 196-201쪽 참

그때는 초승이라 초오일 달이 소나무 끝에 걸렸는데 몽롱한 월야에 나를 전송코자 대문 밖까지 나와 서서 ‘영감, 속히 돌아오시오’ 하던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흰 목도리를 두른 형용으로 월광 중에 가만가만 걸어오는 듯하다.(183)

<불여귀>에서 병든 나미코의 표상은 귀족적 이미지와 우아한 아름다움으로 덮여 있다. 결핵은 그녀의 젊음과 아름다움, 사랑과 행복을 죽음과 결합시키며 낭만적인 방식으로 미화된다. 시어머니의 구박이나 집안 일에서 벗어나 경치 좋은 별장에 머물며 산책을 즐기고 때때로 남편을 맞이하는 나미코의 요양은 투병의 괴로움이 아니라 부부애의 행복으로 나타난다. 병인과 군인으로서 나미코와 다케오 사이에는 현실적 시간이 흐르지 않으며 그들은 신혼의 첫날밤을 반복해 살아간다. <불여귀>에서 결핵은 일상에서 지속되지 않고 지속될 수 없는 연애라는 낭만적 감성을 순간성으로 대체함으로써 절대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 나미코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어버리기에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다. 전장의 다케오에게 기억으로 반추되는 병자 나미코의 모습과 나미코와의 이별 장면은 현실보다 훨씬 아름답고 애절한 것으로 각인된다.

이처럼 낭만적 사랑, 부부애의 순간성으로 미학화되는 <불여귀>의 결핵과 결핵환자는 식민지 대중에게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변안소설 <유화우>는 이러한 대중적 감수성을 바탕으로⁹⁾ 여주인공의 결핵을 ‘해소’라

고. 그런데 <호토토키스>가 변안, 번역된 191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아직 결핵의 만연이라는 사태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결핵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확산되지 않았기에, <두견성>에서 결핵은 여전히 낭만적인 방식으로 환기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류수연은 <두견성>에서 국가라는 당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폐결핵이라는 질병이 환기하는 운명적 비극이 서사를 추동해간다고 본다. 류수연, 『병인의 나르시시즘, 파리한 근대의 두 초상-선우일의 <두견성>과 나도향의 <환희>에 대한 고찰』, 『한국문예비평연구』 22, 2007 참고. <유화우>의 경우에는 결핵을 공포스럽거나 비극적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9) <유화우>는 <호토토키스>의 주된 서사구조를 받아들여 서두와 결말에 새로운 서사를 도입한 간접적 변안으로 구성된다. <유화우>와 <불여귀>의 차이는 크게

는 익숙한 질병으로 재편하고 있다.¹⁰⁾ 귀족여성 나미코를 대체하는 일본 유학생 김설정은 병 때문에 이연을 당하지만 실상 <유화우>에서 발열이나 각혈 같은 증상은 묘사되지 않는다. <유화우>에서 주인공의 질병은 “적년 해소로 신음 고생을 하다가 겹하여 화기”¹¹⁾ 인해 생겨나는 병, 즉 지병인 해소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 오는 화증과 제국의 군대에 복무하는 남편 최영현에 대한 그리움과 겹쳐지면서 생겨난 병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서술에 따르면 결핵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생겨나는 ‘기의 부족’ 상태일 뿐 세균의 침입으로 발생해 전염되는 질병이 아니다. 설정의 해소가 결핵으로 이해(또는 오해)되는 것은 그녀가 일본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설정의 해소병이 결핵으로 이해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그녀의 근대적 행동 방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신의 외로움을 표출하는 방식에 “청승스럽게 울기는 왜 울어? 너도 딱한 일이지만 영현의 신세가 걱정이다. 계집 잘못 얻은 것은 평생 원수보다 더하니까.”(241)와 같이 집안을 망하게 한다는 낙인을 찍고 있다. 설정의 해소병이 결핵으로 이해되는 것은 그녀가 가진 근대적인 자질이 치명적인 것, 특히 봉건 가문의 봉제사 등에 있어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봉제사의 책임을 갖지 않는 친정에서 그녀의 병은 해소에 불과하지만 그녀의 근대적 자질에 공포심을 갖는 시댁에서 그녀의 병은 결핵이 되며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거나 낳아서도 안 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일본유학생 여주인공의 설정, 서시모와의 갈등과 악비(惡婢)의 존재, 해피엔딩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차이는 당대 대중에게 익숙한 신소설의 서사 패턴을 받아들여 이루어진 변화로서, 이를 통해 <유화우>는 원작의 비극을 신소설의 권선징악적 윤리극으로 바꾸어놓는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제국 텍스트의 변안과 식민지 독자의 감수성』, 『인문과학연구』, 강원대인문과학연구소, 2014 참고.

- 10) 해소는 ‘부족증’, ‘소모병’ 등과 함께 서양선교사들이 consumption을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로써, 당시 조선에서 기침 증상을 표현할 때 쓰이던 용어를 빌려 쓴 것으로 엄밀한 의학적 용어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43-44쪽 참고.
- 11) 김우진, <유화우>,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242쪽. (이 글에서 <유화우>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이후에는 인용 쪽수만 표시함.)

설정의 불행이란 그녀가 결핵 환자라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유학생으로서 근대적인 자의식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에 존재한다. 즉 설정의 병에는 풍토가 다른 땅, 제국의 근대 문명으로부터 식민지 조선으로 이주한 인물에 대한 차별과 교정이라는 의미가 부가되는 것이다.

그런데 <유화우>에서 설정의 병을 단순한 해소가 아니라 결핵이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악인 강웅범임은 특징적이다. <불여귀>에서 나미코의 병이 모두에게 이견의 여지없이 결핵으로, 전염되고 유전되기에 병인을 꺼릴 수밖에 없는 질병으로 그려진다면 <유화우>에서 설정의 해소는 누구에게도 심각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사이에 전염되고 유전되는 병으로서의 결핵이란 낯선 것이기에, <유화우>에서 결핵은 악인의 거짓과 음모일 뿐 대중적인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¹²⁾ 이에 따라 <유화우>의 부부에는 낭만적 비극이나 열정의 산화와 같은 은유로서 그려지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과 질병의 비극을 겪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음모에 의한 소동을 겪을 뿐이다. 이처럼 <유화우>에서 주인공의 결핵은 그가 일본 유학생으로서 식민지의 현실과 다른 감성을 가진 것에 대한 차별이나 교정을 위한 시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소설에서 결핵에 걸린 여성 환자의 표상은 <불여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질병과 세련미를 결합하는 양상과 함께, 피식민 여성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감염과 차별, 희생과 저항의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나도향의 <환희>는 순결한 여학생 혜숙이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하며 상품의 화려함에 감염됨으로써 타락하고 차별되는 서사를 보여준다. 순진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욕의 대상자로서 신여성 혜숙은 “암전하고

12) “大正2年度 朝鮮總督府醫專內科外來患者總數九千三十六人(內地人五千五百七十七, 朝鮮人 三千四百五十九) 中 肺結核病者가 一千三百四人(內地人이 八百十五, 朝鮮人四百八十九)에 達하”(方熙昌, 『폐결핵증의 예방책』, 『신문계』 3권 2호, 1915.1, 44쪽)였다는 보고에서 보듯, 1910년대 상황에서 조선인에 비해 일본인 결핵 환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당시 산업 도시 문명의 발달이 미개한 조선은 결핵이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과 함께 실제 결핵을 앓는 조선인 대다수가 결핵 감염의 심각성과 치명성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재주 있고 명망 있는”¹³⁾ 사람과의 스위트홈을 욕망한다.¹⁴⁾ 그러나 혜숙의 욕망은 ‘암전하고 재주 있고 명망 있는’ 오빠가 골라주는 대상이 아니라 오빠가 권하지 않는 대상에 이끌리는 까닭에 깨뜨려지고 만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오빠를 배반하기에 처벌된다. ‘참’된 오빠의 가르침을 따르는 대신 중앙은행 사장 아들 백우영의 세련된 외모에 반해 순결을 깨뜨린 혜숙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결핵의 감염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혜숙에게 선용은 눈물과 동정으로 기억되는 존재이다. 반면 백우영은 현실적인 욕망과 매혹의 대상이다. 현실적인 욕망과 매혹의 힘이 눈물과 동정의 힘과 경합하는 자리에 여학생의 처벌과 구원, 타락과 승화의 서사가 펼쳐진다. 혜숙은 “눈물있고 한 있는 청년”(126)인 오빠 영철로부터 일본 고학생 선용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항상 보는 대모테 안경 쓰고 양복 입고 은 장식한 단장을 짙은 사람과 같으려니(109)” “그리고 인물도 잘났으려니 하”(126)는 착각에 빠진다. 영철과 혜숙 오누이의 불행은 영철이 생각하는 근대성과 혜숙이 욕망하는 근대성이 다른 데 있다. 영철은 동정에 입각한 영혼의 교감, 정신적인 ‘참’됨을 강조하는 반면, “세상 물결에 시달림을 받지 못한” 까닭에 단순하게 “겉모양을 보아 그 속을 판단 하”(108)는 혜숙은 세련미를 욕망한다. 여학생으로서 그녀는 겉모양의 근대성과 패션이 학식의 전위성을 보여준다고 오해하며 근대적 외양에 감화된다. 결핵은 “세상 물결에 시달림을 받지 못한 단순하고 정한 혜숙의” 순수성이 깨어진 데 대한, 자본주의 세상의 거짓에 감염된 것에 대한 처벌인 동시에 정신적 고통과 희생을 통한 정결성의 회복과 관련된다.

정월이가 시를 읽고 소설을 보며 피아노를 탈 때마다 그 전보다 더-감상을 맞보고 그 전보다 더-울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상과 비애를 맞보

13) 나도향, <환희>, 『나도향 전집』 하, 집문당, 1988, 105쪽. (이 글에서 <환희>의 인용은 이 책으로 하며 이후에는 인용 쪽수만 표시함.)

14) <환희>를 비롯해 나도향의 소설에서 열정과 성욕은 깊은 관련을 가지며 낭만적 연애 이면의 욕망의 주체성을 환기한다. 이에 대해서는 김윤선,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환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8, 2002 참고.

는 것이 달콤한 애인의 따가운 피가 스며 나오는 붉은 입술을 빠는 것과 같이 전신을 살라뜨리는 듯한 유열을 깨달았다. (중략) 폐병이 발생되어 피를 토하고 기침을 하며 몸이 점점 허약하여짐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욱 감상과 비애가 그를 못살게 굴었으며 죽음이라는 장래가 괴롭게 하였다. 그는 울면 울수록 더욱 울고 싶었고 죽음이 두려운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그 죽음을 속히 맛보고 싶었다.(265-266)

후반부 서사에서 순진하고 미숙한 여학생 혜숙은 결혼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예술의 유열을 느끼는 폐병환자 정월로 변신한다. 그는 결혼 생활의 환멸로부터 눈물을 얻으며 그 눈물, 비애의 감상을 충족하기 위해 문학과 예술에 심취한다. 그리고 감상과 비애는 더욱 그에게 눈물에 대한 유열을 안긴다. 그는 울기 위해 예술에 취하며 예술에서 울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월감의 유열을 맛본다. 결핵환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게 죽음에 대한 유열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기는 경험이다. 결핵환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예술혼과 비애의 눈물이 죽음에까지 지속되는 ‘참’된 것임을 증명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즉 그가 흘리는 눈물은 공연한 비애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유열에서 오는 진짜 감상이며 진짜 비애이다. 이러한 진짜 비애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용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연애 또는 우애로 이어져 “속마음으로 나는 정월을 애인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이 세상의 살아 있는 불쌍한 인생의 하나로 동정하리라” (284)는 것으로 귀결된다. 대모테 안경을 쓴 세련된 근대 남성에게 대한 욕망을 품었기에, 자본과 상품의 화려함에 눈뜬 여성이기에 혜숙은 처벌로서 결핵을 앓으며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양(또는 교정)된다. 이처럼 결핵의 표상이 자본주의 근대사회의 질서에 감염된 여성에 대한 윤리적인 처벌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환희>는 <유화우>가 제시하는 결핵과 처벌의 서사를 본격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세련된 취향과 구원의 여상(女像)

<불여귀>에서 결핵환자 나미코는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상대방에 존재하는 타자로서의 순수, 약자로서의 정결성과 도덕을 대변한다. 그는 부도덕한 존재가 아니라 불건강한 존재이기에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주체로 포섭되지 못한다. 염치, 정결, 온후함, 감성, 순결 등과 같은 도덕적 가치가 약자인 나미코에게 부여될 때, 여성 결핵 환자의 타자성은 역설적으로 자본주의 근대 사회의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의 매력에 감염된 여성에게 결핵이라는 질병을 부여하며 도덕적으로 처벌하는 서사를 보여주는 나도향의 <환희>와 대척되는 자리에 이태준의 <구원의 여상>이 놓인다. 여성의 정결성이 결핵과 결부되며 구원과 처벌의 서사로 분기하는 것이다. 타락한 여성의 결핵은 처벌의 서사로 이어지고 순결한 여성의 결핵은 정신적 고향이라는 의미를 가져온다. 결핵에 걸린 신여성은 속물 자본에 감염된 처벌 대상이거나 정신적 순결을 환기하는 구원의 주체로 자리한다.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여성이 식민지 자본주의 남성 사회의 폭력에 희생되어갈 때 그녀는 희생양으로서 정신적 구원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1931년 3월부터 1932년 8월까지 <신여성>에 연재된 <구원의 여상>은 제목 그대로 이인애라는 여성 결핵환자를 정신적인 사랑에 의한 구원의 주체로 정립하는 이야기이다. 식민지 자본주의의 현실과 동떨어져 “땅 위에서 높이 떠나 오른 하늘의 방들, 그 속에는 역시 세상과는 풍속이 다른 처녀국의 신비가 담겨 있는”¹⁵⁾ 여대 기숙사를 배경으로 <구원의 여상>은 20대 초반의 신여성들이 남성과의 사랑을 계기로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겪어나가면서 부딪치는 갈등을 그린다. “저희끼리도 친할 뿐 아니라 그들의 사회에선 공인된 단짝이었”(18)던 명도와 인애가 사회주의자 손영조와 이루는 삼각관계는 인애의 편에서 보면 남성의 배신 서사로, 명

15) 이태준, <구원의 여상>, 『이태준 전집』 4, 깊은샘, 1988, 15쪽.

도의 편에서 보면 남성에게 대한 동경과 환멸의 서사로 나타난다. 명도의 임신과 인애의 각혈이 동시에 그려지면서 타락한 명도에 대비해 각혈하며 죽어가는 인애의 모습에 구원과 순결, 영혼의 고양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고아 여성 인애가 영조의 육체적 접근을 피하는 장면은 그녀가 가진 소극성과 동시에 정결성과 윤리성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손영조는 명도가 가진 허영을 부추기며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이기적인 남성이다. 주의자 남성 영조의 귀국으로부터 인애와 영조, 인애와 명도가 맺어온 아름답고 환상적인 유사 가족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결핵의 원인이 존재한다. 주의자 영조의 무책임한 육체의 반대편에 순결한 처녀 인애의 희생과 헌신이 자리할 때, 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성의 모습은 비판하고 용서하는 주체, 구원의 여상의 자리에 놓이게 된다.

명도는 말이 안 나오는 대신 가슴이 터질 듯 울컥하며 우정이 폭발하는 감격과 사죄의 슬픔이 복합쳐 올랐다. (중략) 명도는 인애 앞에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는 것이 수치와 비밀과 정욕과 번민으로 가득한 불순한 자기 영혼을 얼마만큼 정화시키는 것도 같았다. (107-108)

각혈하는 인애의 파리한 아름다움은 도덕적인 타락을 반성하게 만든다. 임신한 명도에게 인애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자신의 타락, 우정의 배반을 비판하는 음성이 되며 감옥에 갇힌 영조에게도 인애의 정신적 사랑은 감화를 불러일으킨다. “말-간 유리그릇 속에는 보기에 애달픈 검붉은 핏덩이가 비맞은 꽃송이처럼 떨어”(108)지는 폐병환자 여성 앞에서 우는 것으로, 즉 불쌍한 여성의 삶에 동정하고 슬퍼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육체적 번민과 성욕의 불순성이 정화될 수 있다는, 순결한 여성의 아름다운 죽음을 둘러싼 속죄와 정화의 서사가 펼쳐지는 것이다. 이처럼 <구원의 여상>에서 결핵은 정신적 육체적인 순결과 타락의 은유로서 형상화된다. “가슴은 찢어 더러운 버러지들이 꿈틀거리더라도 영혼의 끝은 나비처럼 아름답게 날아가고 싶었던”(139) 인애는 육체적으로 더럽지

만 정신적으로 순결하다. 그에 대비되는 대상인 명도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럽다. 때문에 인애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명도에게 감화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기록된다.

나도향과 이태준 등 남성작가의 시선은 결핵에 걸린 여성 육체의 순결 유무에 각각 처벌과 구원의 상이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 죽음과 각혈에도덕성을 관련시킨다. 이에 따라 순결한 여성의 각혈은 순수하고 맑은 것이며 세련되고 아름다울 수조차 있는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이슬 머금은 코스모스를 한아름”(141) 가슴에 안은 채 죽어가는 <구원의 여상>의 주인공이 잘 보여주는 것처럼 희생하는 여성의 아름다움과 결합됨으로써 결핵은 순수한 동시에 낭만적이며 세련된 대상으로 부각된다. 수잔 손탁에 의하면 19세기 서구에서 결핵을 앓는 사람의 얼굴은 귀족적 용모의 모델이 되고 일종의 패션이 되어 연약함이나 뛰어난 감수성의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¹⁶⁾ <구원의 여상>에서 불쌍하고 가냘픈 폐병환자 인애의 느리고 차분한 태도가 일종의 ‘노오블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를 모방하는 학생들까지 생겼다는 점은 결핵의 낭만적 은유를 잘 보여준다. 세련된 취향과 섬세한 감수성을 가진 젊고 아름다운 여성 결핵환자와의 비극적인 연애는 현실을 벗어난 낭만적인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경성여상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 동조 데모를 조직한 이유로 투옥되었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조지야(丁子屋) 백화점 여점원을 거쳐 개벽사에 입사하고 <신여성>지의 편집을 맡아보면서 습작에 가까운 몇몇 소설을 발표한 송계월은 글쓰기보다도 다른 작가들의 (상상의) 연애 대상으로서 문단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¹⁷⁾ 송계월과의 데이트를 회상하는 백철을 비롯하여¹⁸⁾ 유진오와 이효석 등 많은 남성들은 송계월의 화려한 외

16)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참고.

17) 송계월은 1931년부터 33년까지 짧은 기간 다섯 편의 소설을 남겼다. 송계월의 삶에 대해서는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여기자 송계월』, 『여성과 사회』 14, 2002; 김연숙, 『근대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탄생-192-30년대 여기자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5, 월인, 2003 등 참고.

18) 백철, 『개벽시대』,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99 참고.

모와 세련된 취향, 섬세한 교양을 숭배하며 그녀를 일방적인 연애 환상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처녀 임신을 비롯해 각종 남자관계의 루머에 시달리던 송계월은 소문에 맹렬하게 저항하지만 안타까운 생을 23세로 마감한다.¹⁹⁾ “이것저행복을차즈려고 니를아물고병마와싸호고잇습니다.”²⁰⁾ 라는 말처럼 그녀는 끝까지 처절하게 병과 소문과 싸우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꺾박받는 순결한 여성상을 대변하며 결핵과 아름다움, 순결함과 세련미를 결합하는 이미지로 그려진다. “순간에 明滅하는流星의 삶!- 그것이 계월양의 일생이었다. 그러케 하염업섯다.”²¹⁾ 남성작가들에게 송계월은 유성처럼 화려하게 명멸하는 존재,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순간적으로 빛나지만 아쉽게도 빨리 지고 마는 존재로서 기록된다.

그의嗜好는 잘알수업스나 가장尖端人답게 「스포츠」 「스크린」 모도조와했고 音樂에도만흔趣味를가지고잇서서 서울서 病이重해졌슬때도 蓄音機는늘트리노코잇섯다. 그러나 그가 가끔 「輓歌」(Song of Mourning)를 콧노래삼아 불렀든 것은 지금생각하면 單純히그曲調를조와했슬뿐만아니라²²⁾

스포츠와 스크린을 즐기고 음악에도 취미를 가진 아름답고 세련된 여성 송계월은 그 첨단 기호와 취미 때문에 죽음까지도 <만가>를 흥얼거리는 아름다움으로 기억 된다. 즉 남성작가들에게 있어 송계월은 죽음을 예감케 하는 연약한 병자이기에 그 아름다움만을 잠깐 사랑할 수 있는 환상의 존재로 남는다. 송계월을 모델로 한 이효석의 소설 <수난>이나 <마음의 의장>, 유진오의 <수난의 기록> 등은 결핵에 걸린 아름다운 여성과의 교제, 그녀를 둘러싼 사회의 차가운 소문, 그 소문에 죽어가는

19) 처녀 임신의 소문은 최정희로 추정되는 여성의 충동질을 받아 이갑기가 <여인>지에 발표함으로써 공론화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연숙,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3, 월인, 2004 참조.

20) 송계월, 『編輯餘言』, 『신여성』, 1932.11, 112쪽.

21) 이석훈, 『流星-故 桂月孃의追悼』, 『신여성』, 1933.7, 90쪽.

22) 위의 글, 91쪽.

순결하고 가련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다.²³⁾

<수난의 기록>은 지식인 남성이 결핵 환자 여성에 대해 갖는 연애의 환상이 그가 주의자에 대해 갖는 죄의식과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열네살 때 장가든처와 그의몸에서 난 두아해가잇는것이엇스나 아모리하여도 그의처에게 부부간의 애정을 갖일수가 업섯다”(18-19)고 단언하는 서술자는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지향과 현실에서 요구하는 생활력 사이에서 갈등하며 “애라에대한 연모의마음이 나기 시작한”(24)다.

「괜 찬어야헐텐데-이대로 지금 죽어서야 되겠세요」

하며 고개를 들고 빙그시 웃었다. 눈에는 눈물이 빛나고 잇섯다. (중략)
그 그림자를 본 애라는

「양아욱꽃 곱지요?」하고 밝은 얼굴이되며

「어떠케 아름다운지 견딜수잇서야지요 아까 이집학생헌데 부탁해서 일부러 사온거예요」(31)

소설에서 애라가 대변하는 것은 피식민 자본주의의 현실에서 죽거나 소멸할 수밖에 없는 모든 아름다움과 숭고함이다. 그는 각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꽃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악의적 비평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도 생을 욕망한다. 순수하고 숭고한 대상으로서 애라는 한겨울에 핀 아욱꽃처럼 아름다운 동시에 애잔하다. 소설에서 애라에 대한 연모의 마음은 왕년의 주의자인 사촌형 세호에 대한 동정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현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지향과 “조선의 농업문제에대한 연구를 테-마로 잡”(23)아 이루어진 천여 매의 논문, ‘좌익적인 생각’, 왕년의 주의자인 사촌형 세호에 대한 동정과 폐병환자 애

23) “이小説의 모델이 누구라고 問題삼고잇는사람이 一部에잇다. 現實의人物에서 一部分힌트를 얻은 것은事實이나 이小説에나오는 모든스토리리는 絶對로作者의創作이”(유진오, <수난의 기록> 2, 『삼천리문학』, 1936. 32쪽)라는 작가의 부기가 붙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들 소설은 송계월과 관련된 이야기로 읽혔다.

라에 대한 연모 대신에 “『리카도』에 관한 논문”과 “K고등상업학교에 이봄에”(25) 날 교수 자리, 조혼한 아내와 두 아이를 서울로 데려와 살아갈 흥미로 삶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조선 농업문제에 대한 논문을 포기할 수 없는 채 리카도에 대한 논문을 급히 써내려가는 것처럼 그는 두 세계 사이에서 막연히 흔들리기만 한다. 폐병환자 애라와 주의자 세호의 모습이 겹치지며 아름답고 숭고하지만 현실에서 스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에 대한 연민과 속물적인 자신에 대한 비판의 서사가 개진되는 것이다.

<수난>과 <마음의 의장>²⁴⁾은 결핵으로 죽어가는 여성의 세련된 취향을 강조함으로써 시대 현실과의 불화를 암시한다. 주인공 유라는 “하아얀 시이트 위에 누운 병든 소녀의 그림”(277)²⁵⁾처럼 “그림 속의 소녀의 그것과도 같이 애잔하고 슬픈”(278) 표정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다.

손수건을 입에 대고 연거푸 쿵쿵쿵 비인 기침을 지쳤다. 하아얀 손수건이 불 동안에 단풍같이 물들었다. (중략) 종소리에 귀기울이고 쓰러진 듯이 주춤 머물러 섰던 유라는 다시 천천히 발을 때놓으면서 느끼는 듯한 슬픈 음성으로 한 토막의 시를 읊었다.(279)

<마음의 의장>에서 결핵은 격렬한 기침과 쓸쓸한 가을 교회, 베를레느의 <상송 도토오느>가 환기하는 애잔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그려진다.²⁶⁾ 소설 속에서 “아스파라거스와 같이 애잔한”(282) 건강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 “새까만 드레스에 새빨간 목도리를 감은 맵시 고운” 옷을 입고 “만목 거칠은 배경 속에서” 존재할 때, 그녀는 식민지의 현실에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타오르는 한 송이의 성스러운 불덩

24) 이효석의 <마음의 의장>은 아내가 요양을 위해 시골로 내려간 후 독한 커피를 즐기는 지식인 청년이 도회에서 폐병환자 유라와 우애를 나누는 이야기이며 <수난>은 죽은 유라를 둘러싼 소문의 수난사를 그리고 있다.

25) 이효석, <마음의 의장>, 『이효석 전집』 2, 창미사, 1992.

26) 이국적 풍경과 각혈과 ‘코오피’의 미각이 병치되는 이효석 소설의 향유적 미감에 대해서는 김주리, 『근대소설과 육체』, 한국학술정보, 2009, 198-203쪽 참고.

이”(282)의 은유로 기억된다. 불덩이처럼 타오르지만 피처럼 붉은 그 아름다움은 성스럽지만 순간적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이기에 애잔하다. 마음의 귀족으로서 유라는 문화와 교양과 패션으로 감싸인 개성을 구현하는데 이는 식민지의 현실과 맞지 않고 지나치게 서구적인 것이다. “넓은 넥타이의 폭포 속에서 손쉽게 “사치하면서도 결코 속되지 않은, 몸에 조화되고 취미에 맞는 넥타이”를 골라낼 수 있는 “유라의 미에 대한 예민한 감각과 세련된 안식”²⁷⁾이란 지식청년에게 있어 고작 “거리에서 나의 몸을 치장하는 넥타이의 구실을”(309) 할 뿐이다. 결핵에 걸려 죽어가지만 세련되고 아름다운, 사치스러운 여인을 데리고 잠시 산책하거나 연애를 나누고 싶어 하는 피식민 지식인의 환상이란 식민지의 현실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잠시 마음을 장식하는 이국적인 대상에 대한 몽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몽상은 그녀의 세련미가 식민지의 현실에서 거리가 멀면 먼 것일수록 더더욱 환멸의 현실을 상기시킬 수밖에 없다. 피식민 여성 환자로서 타자의 위치에 서지만 타협할 수 없는 세련미를 간직한 여성이 갖게 되는 현실과의 시대착오적 거리는 안타까운 비극의 이미지로 남는 것이다.

이태준의 <까마귀>에서 “늘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여 독자를 널리 갖지 못하는” 식민지 남성 지식인 작가가 남들이 다 떠난 초겨울의 별장지에서 “고요히 바라보면 한눈에 태고(太古)가 깃들이는 듯한 그윽한 경치”²⁸⁾ 가운데 발견하는 대상으로서 결핵환자 여성은 고적한 쓸쓸함의 세계와 조응하며 그 세계의 아름다움 가운데 존재한다. 이때 아름다운 환자 여성과 고적한 쓸쓸함의 아름다움은 현실과 타협할 수 없는 취향의 세련미와 연결된다. 초겨울의 별장지, 괴벽한 문체를 고집하는 작가, 세기의 식시습관을 거부하고 “배가 고파할 줄 아는 알미운 습관부터 아예 망각시켜 보리라”(84) 결심하는 비현실성 가운데 미모의 결핵환자 여성에 대한 낭만적인 환상과 사랑이 생겨난다. “새 양봉투 같은 깨끗한 이마에 눈결은 뉘어 쓴 영어 글씨같이 차근”하고 “꼭 다문 입술, 그리고 뽀로통한

27) 이효석, <수난>, 위의 책, 308쪽.

28) 이태준, <까마귀>, 『한국소설문학대계-이태준』 20, 동아출판사, 1995, 82쪽.

콧봉오리에는 여간치 않은 프라이드가 느껴지는 얼굴”을 가진 그녀에게 서술자는 “장정 고운 신간서에처럼 호기심이 일어”(86) 난다. 이러한 비현실적 공간, 괴벽하고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죽음도 까마귀도, 고적함이나 슬픔조차 아름다운 것이며 행복일 수 있다.

미모의 결핵환자 여성은 조선 상여와 “금칠 막 한 자동차” 대신에 “하-얀 말 여럿이 끌구 가는 하-얀 마차”를 공상하고 “공원처럼 아름답다는”(93-94) 서양식 묘지를 꿈꾸는 낭만적 환상을 가진 존재로서, 공포스러운 대상이 아니라 매력적인 대상으로 기록된다. 그러나 죽음과 질병에 대한 매혹이 가진 낭만적 비현실성은 결말에 이르러 초라한 영구차와 모여드는 까마귀떼 앞에서 식민지의 현실을 환기하는 환멸로 이어진다.²⁹⁾

개울 건너 넓은 마당에는 두어 대의 검은 자동차와 함께 금빛 영구차 한 대가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별장 쪽을 올려다보니 전나무 꼭대기에서는 진작부터 서너 마리의 까마귀가 이 광경을 내려다보며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중략) 까마귀들은 이날 저녁에도 별다른 소리는 없이 그저 까악-까악-거리다가 이따금씩 까르르-하고 그 GA 아래 R이 한없이 붉은 발음을 내곤 하였다.(96-97)

죽음은 싸늘한 추위와 눈이 내려 쌓이는 쓸쓸함 가운데 그녀가 가장 싫어했던 금빛 영구차와 까마귀의 행렬 가운데 “대학 도서관에 다니며 학위 얻을 연구를 한다는 청년”(97) 정혼자의 슬픈 배웅 속에서 이루어진다. 식민지 근대의 현실에서, 죽어가는 자로서의 외로움을 낭만적인 몽상

29) 이태준의 <까마귀>는 포우의 <레이번>의 독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김명렬은 이태준의 ‘까마귀’가 포우의 ‘갈가마귀’에 비해 단지 낭만적 의미만이 아니라 식민지의 억압상태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있다. 김명렬, 『에드가 앨런 포우의 <The Raven>과 이태준의 <까마귀>』,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72쪽.

으로 바꿀 수 있었던 하얀 마차와 하얀 말, 공원묘지의 아름다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죽음은 그녀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까마귀가 모여들어 듣기 싫은 음성으로 울어대는 행렬에 불과한 것으로, 낭만적 몽상을 벗어난 현실을 환기한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결핵에 걸린 세련된 미인의 환상이란 불가능하기에 슬프다. 까마귀의 울음소리를 벗으로 생각하거나 아름다움으로 환기하기에는 현실은 저열하며 일상은 강한 힘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에 까마귀의 울음 ‘그 GA아래 R이 한없이 붙는 발음’이란 고난과 가난, 낭만이 불가능한 현실을 환기한다. 이처럼 <까마귀>는 낭만적인 환상 가운데 여성 결핵환자의 세련미를 그리는 동시에 그 환상의 불가능성과 환멸을 보여줌으로써 식민지 근대의 현실을 환기한다. 결핵에 걸린 여성이란 세련된 미모의 대상이 아니라 불우한 환경의 산물이며 그 불우함이란 식민지 자본주의적 현실과 가부장제적 현실을 지시하는 것이다. 여성의 육체적 순결과 결핵이 연관되며 정결한 처녀의 죽음을 낭만적인 동정과 구원의 환상으로 형상화할 때 결핵에 걸린 여성 환자는 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남성주체의 일방적인 응시 대상으로 남는다. 그러나 과연 그 응시 대상인 식민지의 결핵환자 여성에게 남성의 시선이 부여하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4. 식민지 근대의 현실과 저항하는 여성

남성작가들이 송계월을 기억하는 주된 코드는 세련된 취향과 미모이다. 이는 여성작가들이 그녀를 “몹시도냉정한 리지적인간”³⁰⁾으로 기억하는 것과 구분된다. 남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의 낭만적 비극으로 송계월의 죽음을 추모한다면 여성들은 송계월의 죽음에서 지성과 교양을 갖춘 피식민 여성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 대한 피 흘리는 저항을 발견한다.

30) 윤성상, 『그길에 그려케도뵈소서』, 『신여성』, 1933.7, 93쪽.

송계월의 죽음은 “날기도前에 부러진 어린새의 다리”와 “피기도前에 시드러버린 불상한薔薇”³¹⁾의 안타까움으로 채워지며, 당대 신여성들에게 피식민 지식인 여성의 운명에 대한 공통된 슬픔을 환기한다.

당신은 「女性」이란 글자를 등에 붓친 까닭에 온갖 테마와 가진社會의 卑劣한攻撃에 원몸이 상해서 戰死한 勇士요 (중략) 붓곳으로 행동으로 입으로 온갖女性들을 옹호하면서 알몸으로 나서서 싸웠섯소. 한사람의 후원도 업고 한사람의 위로도 업는 선봉에 나가서 어지간이 표독스럽게도 싸호다가 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흐르고 살이쩍겨서 당신은 죽었구려 쓸쓸하게! 외롭게도! (중략) 弱한듯한 女性들이 甞힘을 길너 桂月이의 무덤우흘 甞세계 行進해나갈 때 당신의 靈은 깃뻐와 위안을 어드시오.³²⁾

동료 신여성들의 회고에서 그녀의 죽음은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 ‘약한 듯한 여성’이 갖는 타자성을 환기하며, ‘굳센 힘을 길러’ 내어 ‘온갖 여성들을 옹호’하기 위해 싸워온 ‘용사’의 죽음으로 기록된다. 그녀는 아름다운 신여성으로서 남성들의 온갖 테마에 희생된 여성이며, 남성들이 부여하는 특정한 이미지에 갇히지 않으려 온몸으로 싸워간 여성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온전히 할 수 없었던 불쌍한 여성이다. 김자혜를 비롯한 신여성들은 아름답고 불쌍한 죽음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전장에서 동료를 잃은 듯한 안타까움으로 송계월의 싸움과 저항을 추모하며 고통 받는 약자에 대한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남성작가들에게 결핵에 걸린 세련된 신여성의 모습이 낭만적 연애의 환상과 결부된 찰나의 아름다움으로 환기되는 반면, 그 연애 환상의 대상인 신여성 환자에게 있어 결핵은 식민지 가부장제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저항을 상기시킨다. <까마귀>의 여주인공이 까마귀를 보며 저주의 불꽃이나 방울을 연상하는 것과 같이, 결핵을 앓는 피식민 여성 환자는 억압

31) 모운숙, 「哀悼」, 『신여성』, 1933.7, 89쪽.

32) 김자혜, 「느저진편지답장」, 『신여성』, 1933.7, 89-90쪽.

받고 소외된 현실, 불우한 환경과 죽음에 대한 연상 가운데 히스테리나 광기를 보여준다. 여성 환자 자신에게 있어 결핵은 다양한 현실적 억압의 극단을 의미하는 한편 예민한 신경의 히스테리나 광기로서 현실에 저항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가령 최정희의 <흥가>가 주인공의 결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 속 여성 생존이 가진 암울한 전망과 공포이다. 신문사에 다니며 어머니, 여동생, 아들로 구성된 가정을 꾸려가는 신여성 주인공이 돈에 쫓겨 구한 셋집은 ‘흥가’이다. 그 흥가는 남편이 죽은 후 재산을 시동생들에게 빼앗기고 억울함에 미쳐버린 여성의 원한이 서려 있는 집이며 그 집에서 주인공은 악몽을 꾸고 결핵 진단을 받는다. 봉건적 가족 윤리가 사라지고 형제끼리도 재산을 둘러싼 쟁투가 벌어지는 근대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머니, 딸, 자매와 자식으로 이루어진 타자들의 생존이란 공포스러운 것이며 패배의 암울함을 환기한다. “정말 집터가 세어서 내가 병들고 또 그 무서운 꿈까지 꾸었는가. 저녁쯤은 그 미친 안주인이란 여자가 꼭 그 시형 집을 뛰쳐나올 것이 아닌가 (중략) 그러니 아프고 무섭고 하다가 여기서 죽고 말아야 하는 건가.”³³⁾ 결핵과 광기는 식민지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억압 가운데 신음하는 여성의 현실을 드러내는 장치이다. 동시에 광기와 결핵은 여성이 자신의 타자성을 이중으로 강조함으로써 현실에 저항할 수 있는 지점을 이룬다. 가령 <인맥>에서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두 자본가-가부장에 저항하는 여주인공은 친구의 남편인 “그이가 가진 교양, 그이가 가진 정열까지도 희랍적일 것 같이 생각되”³⁴⁾는 시인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외면받자 각혈하며 의도적으로 자신이 가장 싫어하던 남성과 동거를 하는 히스테리적 자기 파괴를 통해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현실 윤리에 저항한다.

사실 근대 사회에서 결핵은 열악한 자본주의 현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여성 환자는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약자-타자로서 현실을 적

33) 최정희, <흥가>, 『한국단편문학대계』 5, 삼성출판사, 1963, 16쪽.

34) 최정희, <인맥>, 『끝없는 방랑, 녹색의 문』, 한국현대문학전집 22, 삼성출판사, 1978, 455쪽.

나라하게 드러내는 위치에 있다. “바로서울서 한십리쯤떠러져있는 교외”³⁵⁾의 ‘x창제사공장’ 한편 의무실 냉방에서 폐를 앓으며 피가 섞인 기침을 토하는 노동자 김분옥이 동지 S 언니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이루어진 <공장소식>에서 송계월은 결핵을 지극한 고통과 회한의 상처로 그려내고 있다. 결핵은 더운물과 찬물에 온종일 손을 담그고 실을 뽑아내는 여직공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질병이며 “그여위디여윈 얼굴헛트러진머리! 고통을참으시는 그신음소리! 이모든 것이 얼는거”(108)리는 것과 같은 박해받는 여성노동의 현실을 집약한 대상이다. 영등포 제사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가 직면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의 현실과 계급적 우위에 있는 남성의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의 비애를 보여줌으로써 결핵에 걸린 여성은 폭행당한 여성,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죽어가는 여성 등 가부장제 자본주의에 희생되는 모든 썩발탄 여성을 대변하게 된다. “끄트로 부탁하옵는 것은 삼백팔십오명의 동무들을 위하여 아니 우리와한가지로울고있는 무수한동무들을위하여 언니힘있게싸워주소서 그러고 남은내뒤통무들의 참다운동지가 되어주시기를바라”(110)는 마무리를 통해 송계월은 피식민 여성 노동자-환자를 피해자나 희생자가 아니라 저항하는(욕망하는) 주체로서 그려낸다. 병은 현실 사회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대상인 동시에 그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폭력적 현실을 넘어 동지들과 함께 저항하는 여성의 힘을 보여주는 지점인 것이다.

결핵에 걸려 죽어가는 피식민 여성 노동자를 단순한 희생양으로서 동정과 연민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이를 넘어 저항하는 주체로서 그럴 것인가는 제사공장 노동자의 결핵을 바라보는 남성작가 채만식과 여성작가 강경애의 차이를 이룬다. 채만식은 <보리방아> 연작³⁶⁾에서 결핵에 걸려

35) 송계월, 『공장소식-여직공편』, 『신여성』, 1931.12, 107-108쪽.

36) <보리방아> 연작은 <보리방아>, <동화>, <병이 낫거든>으로 이어지는, 서술과 묘사가 유사한 세 편의 단편소설을 이야기한다. <보리방아>는 주인공의 이름이 업순이 대신 옹희로, 주인공의 처지 역시 몰락한 양반의 후예로 설정되어 있으나 제사공장에 가기까지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연작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차 안에서>는 지식인 서술자가 등장하여 폐병을 앓아 귀성하는 여성 노동자

귀향하는 여성 제사공장 노동자를 분노가 섞인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도시 환경의 피해자이기에 안타까운 희생자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 희생의 원인에는 화려한 상품에의 매혹과 도시에 대한 동경이 가로놓인다. <보리방아>에서 용희(업순)가 고향을 떠나 전주 제사공장으로 가게 되는 것은 그녀가 재봉틀에 대한 욕망을 품은 까닭이다. “꿈에는 더러 재봉틀 바느질을 해보았다. 용희가 제것이라고 사놓고 쓰면서 좋아도 했고, 또 어찌다가 산산 부서지든지 누가 뺏어가든지 해서 울다가 잠이 깨면 꿈이곤 했다.”³⁷⁾

재봉틀을 가지고 싶어 했던 소박한 농촌 처녀 용희에게 현실은 가난으로 인해 시집조차 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먹을 양식도 없는 처지에 새끼 돼지를 길러 돈을 벌겠다는 것이나 부잣집에 시집을 가겠다는 것은 모두 허황한 꿈인데, 제사공장 노동자가 되어 ‘팔자를 고쳐’ 본다는 선택 역시 이에 못지않은 몽상이다. “이렇게 해서 재봉틀 부인은 용희의 ‘팔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주인 양반 즉 태호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101)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막연한 지향과 동경, 특히 비단이나 재봉틀 같은 사치품에 대한 욕망이 농촌 여성에게 주어짐으로써 그들은 ‘팔자를 고쳐’ 보려 노동자가 된다. 이는 일종의 ‘동화’이며 환영이다. “그날까지가 ‘동화’고, 그래서 업순이는 그리로 떠났”³⁸⁾지만 이 동화가 산산이 깨어짐으로써 아이러니를 통해 현실의 잔혹함이 극대화된다. <병이 낫거든>은 <보리방아>와 <동화>가 보여준 공장노동자로의 전신에 대한 기대가 산산이 깨어진 후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병이 낫거든>에서 업순은 “쿨룩쿨룩 기침이 나오고, 가방이, 하찮은 것 같더니(그도 원기가 쇠한 탓이겠지만) 들고 걸기에 무척 힘이 부”³⁹⁾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차가운 가을 새벽바람을 맞으며 공장을 떠나간다. “가난스런 포부였으나마,

의 문제를 분노와 동정의 시선으로 서술한다.

37) 채만식, <보리방아>, 『채만식전집』 7, 창작과비평사, 1989, 78쪽.

38) 채만식, <동화>, 위의 책, 246쪽.

39) 채만식, <병이 낫거든>, 『채만식전집』 8, 창작과비평사, 1989, 121쪽.

감냥엔 크고 즐거운 희망”을 가졌던 것이 깨어지고 “부질없는 병만 얻어가지고, 그리하여 헛되이 이렇게 중도에 작파를 하고서 물러가고 말다꺼, 차마 애달프고 원통한”(123) 마음뿐이다.

<보리방아> 연작에서 업순의 질병은 “소위 선병질(腺病質)의 체질”에다가 “공기 좋은 농촌에서 나서 농촌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가령 호흡기계통의 질병에는 매우 저항력이 약한, 따라서 도회지의 공기가 적당치 못한 체질”(126)인 까닭에 걸린 것으로 서술된다. 이러한 인식에서는 제사공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나 공장 노동자가 감내해야 하는 희생, 자본주의의 폭력성과 같은 문맥은 들어가지 않는다. <보리방아> 연작에서 결핵은 농촌 여성의 도시에 대한 감염, 자본주의 문명에 대한 감염이 가져오는 타락에 대한 처벌과 유사한 것이다. 업순이 “깨끗하고 눈같이 정한 하얀 비단, 눈이 부신 진자주 비단, 시원스런 초록 비단, 첫봄 머리의 개나리꽃같이 반가운 비단, 진달래꽃같이 이쁜 비단”(130)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제사 공장으로 가는 것처럼 그는 결핵으로 공장을 그만두면서도 어머니의 우단 목도리, 아버지의 샤쓰에 첫 달부터 사고 싶어 했던 “빛깔이 파르스름하니 이쁜 가방”(132)을 사가지고 귀향한다. 결핵이란 자본주의 사회의 각종 상품에 대한 욕망이 농촌 처녀를 감염시키는, 순진성과 순박성이 사라지는 과정과 결부된다. 이에 따라 아이러니하게도, 이 질병은 농촌으로 귀향한 순간 어떤 걱정거리도 되지 않는다. “참으로 업순이가 지금, 제 병이 어떠한 병인 줄을 안다면, 소위 사형을 선고받음이나 다름 없다는 그런 끔찍한 병인 줄을 안다면”(138) 결핵은 무시무시한 병이 되겠지만 집으로 돌아온 업순과 부모에게 그 병이란 ‘수토불복’, 물이 맞지 않아 생긴 쇠약증일 따름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사공장에 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참, 아버지 말씀따나, 시집이나 가는 거라고, 병이 낫거든, 인제는 시집이나 가는 거”(139)라는 또 다른 동화를 꿈꾼다.

채만식의 유고 가운데 하나인 <차중에서>는 결핵에 걸려 귀향하는 제사공장 여공의 이야기를 지식인의 냉정한 시선을 통해 묘사한다는 점에서 <보리방아> 연작을 이어받으면서도 현실에 대한 환멸을 직접 드러내

는 작품이다. 목포로 가는 야간열차의 3등칸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가뽀 숨을 허얼헐, 손에 든 모조피 크렁크와 보따리를 주체 못해 하”는 어린 여직공과 그 아버지의 모습을 지식인 서술자는 “동정스럽기 전에 더럭 우선 심정이 나서”⁴⁰⁾ 바라본다. 영등포 제사공장에서 일 하다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몸이 아파서 귀향하는 길이라는 소녀의 병을 결핵으로 짐작하고 동정하는 서술자의 모습은 그 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소녀의 순진성과 대비되어 잔혹한 현실을 환기시킨다.

‘허! T.B가 낫거든! T.B가 낫거든, 시집을 가고!’

부지할 수 없는 슬픔과, 일변 노염이 북받쳐올랐다. (중략) 그에게 죄가 있는 건 아니었다. 그러나 그 죄없는 것이 차라리 보기 싫고 미웠다.(149)

<차중에서>는 <보리방아> 연작과 달리 가난하고 무지한 농촌 또는 조선의 현실에 대한 냉소를 직접 드러낸다. 병이 나오면 시집을 간다는, 순박한 동화의 세계에 대한 냉소란 곧 자본주의 근대의 냉혹함과 그러한 냉혹함에 파괴되지 않을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현실에 대한 냉소와 분노이기도 하다. 무지하고 무죄하다는 사실에 오히려 염증을 느끼는 서술자의 냉소는 그 어떤 미래의 가능성이나 동화를 넘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오지 않는다.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강한 냉소와 동정을 가장한 분노만이 개선할 때, 피식민 제사 노동자 결핵환자의 비극이란 동정의 대상도 저항의 대상도 되지 못한 채 환멸을 불러일으키는 막연한 배경으로 물러나고 만다.

이에 비해 강경애는 <인간문제>에서 결핵으로 죽어가는 제사공장 여성 노동자 선비의 삶과 죽음을 통해 함께 저항하는 노동자의 숭고한 연대와 현실에 대한 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를 잃고 지주 덕호에게 정조를 빼앗긴 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친구 간난이

40) 채만식, <車中에서>, 위의 책, 142-143쪽.

와 함께 인천 대동방적 노동자가 되는 선비에게 결핵은 “어깨가 무겁도록 짊어진 사명”⁴¹⁾과 열악한 제사공장 노동의 현실에서 생겨난 것으로, 그녀는 결핵으로 비참하게 희생되는 동시에 숭고하게 죽어간다. 거대한 기계음이 “귀가 막막하게 메어지는 것 같”(355)은 가운데 스무 개가 넘는 ‘와꾸’에 실을 이어야 하는 정신없는 노동과 끓는 물에 손을 넣어 실을 뽑아내야 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선비는 결핵에 걸린다. 감독들의 가차 없는 눈초리와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대동방적 공장은 감옥과 같으며 석유내가 나고 푸슬거리는 안남미로 지은 밥과 새우젓내가 물큰한 열악한 반찬을 먹고 감독의 성폭력에 노출된 채 일하는 여성노동자의 현실은, 시골에서 도시로 내쳐진 여성의 운명이 아니라 모든 자본가가 지배하는 현실의 비정함을 이야기한다. “번개치듯 돌아가는 와꾸에 흰 무지개같이 서기를 뺨치며 감기는 저 실! (중략) 지금에 저것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이 그의 생명을 쪼먹어 들어가는 어떤 커다란 벌레같이 생각되었다.”(357) 선비에게 결핵이란 결핵균의 침입이 아니라 자본이라는 세균의 침입으로 이해된다. 자본주의 노동의 열악한 현실이 결핵균을 대체하는 이미지로 등장하는 것이다.

<인간문제>에서 선비의 죽음은 기계 노동과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폭압에 희생된 것으로, 노동자들에게 운명의 동질성을 환기함으로써 각성하고 저항하게 하는 숭고한 지점을 이룬다. 그녀의 죽음은 가혹한 노동현실 속 전체 노동자의 죽음을 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전향한 신철을 대신하여 첫째의 의지를 일깨우며 사명감을 부여한다. 사상적 지도자 신철이 감옥에서 전향을 하고 나와서는 취직하고 부잣집 딸과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실망하던 첫째에게 선비의 가혹한 운명은 거대한 인간문제 전반으로 확대되며 “앞으로 이 당면한 큰 문제를 풀어나갈 인간이 누굴까?”(364)라는 사명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선비의 결핵은 단지 질병이 아니라 자본가의 폭압에 의한 희생이며 그 폭압 앞에

41) 강경애, 『인간문제』, 창작과비평사, 1992, 342쪽.

저항한 노동자의 희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녀의 죽음은 첫째를 비롯해 모든 노동자의 끝없는 저항을 환기하는 운명적인 죽음으로 의미매김된다. 도시 문명과 자본주의 상품에 매혹되어 결핵으로 희생-처벌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동정과 냉소를 보여주는 채만식과 달리, 강경애와 송계월 등 여성작가들은 여성 노동자의 결핵을 통해 동정이 아닌 사명의 환기를, 희생이 아닌 저항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한국근대 소설에서 각혈하는 피식민 여성 환자의 표상이 가진 의미와 가치를 분석해 보았다. 결핵에 걸린 여성은 1910년대 <호토토기스>를 번역, 번안한 <불여귀>, <두견성>, <유화우> 등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이래 자본주의 근대에 감염된 여성의 허영에 대한 처벌로서, 근대적 세련미를 결합한 응시의 대상으로서, 때로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의 폭력에 희생되거나 그에 저항하는 존재로서 형상화 되어 왔다. <환희>가 자본주의 근대의 유희에 감염된 신여성 자아에 대한 처벌로서 결핵을 묘사한다면 <구원의 여상>은 희생하는 여성의 순결을 통해 타락한 청년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결핵을 그려낸다. 세련된 취향과 미모를 자랑하지만 요절한 여성 작가 송계월은 여성들에게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현실에 저항하는 여성 지식인으로 기억지만 남성들에게는 세련된 취미를 가진 미인이란 응시 대상으로 자리한다. 송계월을 모델로 한 <수난의 기록>과 <수난>, <마음의 의장> 등은 잡지사에서 일하는 미모의 지식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각혈하며 죽어가는 여성의 애잔함에 대한 동경과 동정을 형상화한다. 이러한 남성 작가들의 시선과 달리 송계월 자신은 결핵을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라는 원인으로 환원해 형상화함으로써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드러낸다. 결핵에 걸린 제사공장 노동자를 형상화함에 있어 채만식이 자본주의 노동에 희생되는 여성의 운명에 대

한 동정과 냉소에 머문다면, 강경애는 저항하는 주체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숭고한 희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강경애, 『인간문제』, 창작과비평사, 1992.
 김우진, <유화우>, 『한국신소설전집』, 을유문화사, 1968.
 나도향, 『나도향 전집』하, 집문당, 1988.
 유진오, <수난의 기록>, 『삼천리문학』, 1936.
 이태준, 『이태준 전집』4, 깊은샘, 1988.
 이효석, 『이효석 전집』2, 창미사, 1992.
 조중환, 『불여귀』, 박진영 편, 보고서, 2000.
 채만식, 『채만식전집』 7, 8, 창작과비평사, 1989.
 최정희, 『한국단편문학대계』 5, 삼성출판사, 1963.
 최정희, 『끝없는 방랑, 녹색의 문』, 한국현대문학전집 22, 삼성출판사, 1978.
 기타 <신문계>, <신여성> 등

2. 단행본

- 강진호 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99, 1-409쪽.
 권정희, 『호토토기스의 번용』, 소명출판, 2012, 196-201쪽.
 김주리, 『근대소설과 육체』, 한국학술정보, 2009, 198-203쪽.
 대한결핵협회 편, 『한국결핵사』, 1998, 119-191쪽.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소설의 기원』, 박유하역, 민음사, 2005, 134-138쪽.
 대리언 리더, 데이비드 코펠드, 『우리는 왜 아플까-몸과 마음의 관계로 읽는 질병의 심리학』, 배성민 역, 동녘사이언스, 2011, 39-41쪽.
 르네 듀보, 『건강이라는 환상』, 허정 역, 삼성미술문화재단, 1982, 195-196쪽.

수잔 손탁, 『은유로서의 질병』, 이재원 역, 이후, 2002, 12-58쪽.

3. 논문

김명렬, 『에드가 앨런 포우의 <The Raven>과 이태준의 <까마귀>』,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237-274쪽.

김연숙, 『근대여성의 글쓰기와 여성작가의 탄생-192-30년대 여기자 집단을 중심으로』,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5, 월인, 2003, 152-189쪽.

김연숙, 『여성작가가 된다는 것, 그를 둘러싼 소문과의 쟁투』,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 3, 월인, 2004, 108-150쪽.

김윤선, 『나도향 소설에 나타나는 ‘낭만적 사랑’의 문제-〈환희〉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18, 2002, 97-122쪽.

박정애, 『어느 신여성의 경험이 말하는 것-여기자 송계월』, 『여성과 사회』 14, 2002, 133-170쪽.

최은경, 『일제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Abstracts

The Representation of Tuberculosis and a Colonial Woman Patient in Modern Korean Novels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search the meaning and value about the representation of a woman tuberculosis patient in Modern Korean Novels at colonial age. After Jo, Il-jae's <A cuckoo>, Seonu, il's <A sound of cuckoo> and Kim, woojin's <The falling of blossom> which were translation and adaptations of <Hototogis> emerged, a woman tuberculosis patient has been described variously like an object of compassion, fascination, fear and pity etc. in Modern Korean Novels. In the works like <The falling of blossom> and <Ecstasy>, a woman's tuberculosis means punishment or correction about her susceptibility disaccord with the colonial society, which has formed because she came into contact with Modern Capitalism civilizations. At the other part, a woman tuberculosis patient was connected with not a sense of guilt from corruption but the spirit of self-sacrifice from chastity in Yi, Tae-jun's <A relief woman>. A beautiful and polished woman patient, as a scapegoat in the patriarchy capitalism society, reminds intelligent men of some romantic fantasy. And forward, a woman tuberculosis patient-labourer is a sublime being not was sacrificed by a capitalism system but resisted with that system in women writers' works like Song, Gye-weol's or Gang, Gyeong-ae's.

Key words : The Representation of tuberculosis, A woman patient, Punishment, Gaze,
Resistance, Colonial patriarchy capitalism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